

# “4월초 모내기땐 햅쌀시장 선점”

전남도 농기원, 벼 조기 재배 연구 활발  
3월 말 심으면 냉해로 60% 이상 고사

기후온난화 현상에 의해 100년 전보다 2°C 이상 한반도 평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전남지역의 적정 모내기 시기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원장 박민수) 쌀연구소는 벼 조기(초기) 재배 기술 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두 달 간 보통간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를 심어 벼 조기재배 모내기 한계기 설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험연구는 농업기술원 시험포 3천여m<sup>2</sup>에서 조생종 ‘운광 벼’와 중·만생종 ‘일미 벼’ 등 2품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3차 모내기 후 최근 중간 생육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25일 모내기 벼는 60% 이상 냉해로 인해 고사했으며 피해 정도는 중·만생종인 일미 벼가 운광 벼에 비해 높았다.

4월 10일 심은 모는 4월 말까지 생육정지 상태로 있다가 5월 초부터 정상적인 생육을 보이고 있다. 4월 들어 모내기한 벼는 운광·일미벼 모두 크기와 줄기·뿌리 수가 각각 10.2~10.5cm, 4.1~5.5cm, 5.9~6.4cm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농촌진흥청 국립 식량 과학원은 무안 청계면 50m<sup>2</sup> 시험포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벼를 연이어 재배하는 2기작 가능성 타진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7월 하순에 1차 수확을 한

후 곧바로 모내기를 해 11월 중순께에 2차 수확을 할 계획이다.

이곳 역시 온실에서 육묘한 조생종 ‘운내비’를 3월 20일 심었으나 냉해 피해로 고사했고, 4월 10일 벼는 50%만이 생존했다. 앞으로는 지온 견딜성(耐冷性), 수확량, 품질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햅쌀시장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조기 모내기는 올해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2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8일 현재 계획면적 1만3천 800ha중 47.1%인 6천500ha가 완료 됐다.

모내기를 한 달여 앞당겨 조기재배 할 경우 태풍과 집중 호우와 벼멸구 피해로 인한 품질과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통 10월 초순~중순에 이뤄지던 벼 수확이 9월 초순~하순에 가능해 햅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조생종 벼 수확 후 월동배추와 가을감자, 미나리, 택사 등을 후작으로 재배,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관행적으로 전남 지역 모내기는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실시하고 있다.

신해룡 쌀 연구소장은 “전남지역의 모내기 시기를 어느 시점까지 앞당겨야 안전하고, 빠르게 쌀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시험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벼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극(極)기온 등 시·군별 기상 데이터 수집과 함께 순천·고흥 등 위도별로 시험포를 설치해 주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급격한 도시화 등에 의해 세계 평균 상승치 0.74°C보다 2배가 높은 1.5°C가 상승했다.

/송기동기자 song@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행복마켓’은 ‘나눔마켓’

목포복지재단, 저소득층에 20~30% 할인 혜택

목포복지재단(이사장 이혁영)이 운영하는 ‘목포사랑 행복마켓’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락동에 문을 연 ‘행복마켓’에서는 쌀, 라면, 주방 용품 등 생필품을 시중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용세대에 개월 3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결손액은 재단 후원금에서 보전한다.

목포시와 목포복지재단은 앞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 용대상을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물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632세대이다. 지난 12일 정종득 목포시장과 목포복지재단 이혁영 이사장은 라면과 조미김 등 2천70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이들에게 무료로 전달했다. <사진>

목포복지재단은 ‘행복마켓’을 통해 현재까지 2천65세대에게 4천600만원에 이르는 물품을 판매했다.

목포시와 목포복지재단은 앞

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 용대상을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물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13일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인연해수욕장 옆 해변도로에 분홍빛 해당화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바닷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해당화는 5~7월 가지 끝에 1~3개씩 꽃이 핀다.

(함평군 제공)

## 제1회 전국 농업인 창업대회

전남도, 100명 규모로 참가

전남도는 100명 규모로 참가